■ 12·7 부동산 대책

‘투기봉인’ 풀어 얼어붙은 시장 살리기

집값 급등때 도입 시장규제 대거 해제

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내년까지 연장

정부가 침체된 주택·건설경기 부양 조치에 나섰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유예 등 재건축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집값 급등 시절 만든 부동산 규제를 대폭 풀면서 노무현정부 이후 금기시된 ‘다주택자’와 ‘강남 3구’ 그리고 ‘재건축’을 건드렸다는 점이 눈에 띈다. 부동산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건설업체 부도가 잇따르고 주택심리는 얼어붙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로 시장이 살아날지는 미지수라고 보고 있다.

◇“규제 과도했다” 대거 해제 = 정부는 투기수요를 억제할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의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양도세 중과 제도는 3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60%를,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50%를 각각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6~35%의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이 조치로 전국 144만명(2010년 인구센세스 기준)으로 추산되는 다주택자가 중과세 대상에서 벗어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중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지만 ‘부자감세’ 등의 논란도 있어 내년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국회에 계류중인 폐지 법안 개정을 계속 추진하되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보완책을 마련했다.

주택법 하위 법령을 고쳐 우선 건설사의 토지매입에 따른 조달금리를 상한제의 비용항목에 최대한 반영해 줄 방침이다. 또 분양가 공시항목(공공이 61개, 민간이 7개) 가운데 공공의 공시항목을 민간 수준으로 축소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의 원가공개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정부는 과거 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기에 마련된 주택 청약제도도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비수도권은 현재 시·군 단위로 제한된 청약가능지역을 도 단위(인접 광역시 포함)로 확대한다. 다만 해당 시·군 거주자에게 당첨 기회를 우선 부여할 계획이다.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1순위, 2순위, 3순위로 순차 분양하도록 한 현행 청약제도를 1~2순위를 동시 분양할 수 있도록 변경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내년 2월중 추가로 해제된다. 최근 2년여간 땅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후분양 조건으로 공급받았지만 자금 부담으로 개발이 안된 택지는 경기 상황을 고려해 선분양을 허용하고, 뉴타운 지구의 기반시설 설치비는 내년에 국고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서민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 = 국토부는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끝나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1조원 한도내에서 내년까지 추가 연장된다. 또 대출 금리는 연 4.7%에서 4.2%로 0.5%포인트 낮추고,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1조원이 내년 말까지 모두 지원될 경우 약 1만5000가구가 내 집마련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생애최초 구입자가 아닌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구입자금은 자격요건을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해준다.

올해 말로 끝나는 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의 건설자금 지원(연 2%)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내년 중 전세임대주택 1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나 소년소녀 가장 및 시설퇴소 아동 등에 대한 지원물량은 3000가구로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대학생 주거 안정을 위해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 1만가구를 내년 1월부터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도시내에 중소형 임대주택이 많이 건설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 분양용지의 일부를 5년 임대 또는 10년 임대로 전환해 임대물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매운무-항암, 단무-소화불량 ‘효과’

불린 쌀에 무·굴 넣고 불만켜면 별미

■ 만능 요리재료 ‘무’

김장철이다. 며칠 전, 이웃의 점심 초대를 받았다. 갔더니 역시나 김장 중이었다. 마당에선 돼지고기를 삶고 동네 할머니들이 다 모여 있다. 늦게 가 엄벙덤벙 대기하다 김치에 고기 얹어 맛있는 한 끼를 얻어먹는다. 점심 먹고 술 한 잔 하는 중에 우리 집 김장 소식을 묻는다. ‘아직 안 했다. 이제 해야 한다’ 하니 이웃 아저씨 몇 분이 ‘추워지니 얼른 해야 한다. 배추 얼기 전에 캐야 한다’ 조바심을 치더니 결국 한 주간 날씨까지 확인하고는 어느 순간 밭에서 캐서 나르는 일부터 모두 그들의 일이 되어 있었다.

김장엔 아직 게으르지만 나름 잘 해 놓은 것도 있다. 바로 무 단속이다. 진즉에 캐어 한 동이는 동치미로 또 한 포대는 얼지 않게 잘 담아 두었다. 골판지 박스에 마르지 않도록 비닐로 잘 싸고 덥지도 춥지도 않은 곳에 모셔 두었다. 겨우내 지져 먹고 끓여 먹고 무밥까지 해 먹을 양식이 되어 줄 것이다.

올 역시 나의 무는 기대대로 맵다. 흔히 ‘맵다’ 하면 맛이 없는 무로 생각을 하는데 내 생각은 다르다. 무가 매워야 무국이 맛있으며 익은 동치미 역시 시원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무래도 달큰한 맛을 싫어하는 취향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단 무는 생채나 졸임에는 괜찮으나 동치미 등 푹 삭은 것의 맛을 내는 데는 매운 무가 최고다. 특히 국물을 내는데도 시원한 맛을 원하면 단 것보다 매운 게 더 낫다.

사실 무의 매운 맛에 항암과 항균 성분이 있다고 한다. 생선회에 무채 깐 것도 알고 보면 항균 성분 덕을 보자는 것이고 그러려면 매운 무가 더 효과적이라는 말이다. 어쩌다 보니 매운 무 예찬이 되고 말았는데. 달고 시원한 무는 주스나 생채로 먹으면 좋은데 감기는 물론이고 겨울철 활동이 줄어듦으로 인한 소화불량에 좋으니 무라면 모두 오케이 땡큐다. 특히 요즘의 무라면 말이다. 무도 제철이 있어 여름엔 절대 지금의 맛이 나지 않으니 말이다.

그럼 무 한가지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일단

굴 무밥! 불린 쌀에 채 썬 무와 굴 넣고 밥 불만 켜면 되는데 비법이라면 약간 줄여 잡은 밥물에 다시마 한 장을 넣고 약간의 소금과 참기름 한 큰 술을 넣고 휘휘 저어 앉히는 것이다.

밥물을 줄여 잡은 것은 무에서 나오는 수분을 계산해서이고 다시마와 참기름은 비벼 먹을 때 밥맛이 겉돌지 않아 더 맛있다. 거기에 양념장 곁들이는데 육수 조금 넣은 장에 참기름 고춧가루 그리고 쪽파와 고추 썰어 넣으면 되는데 겨울철 손님 들이닥치면 뚝딱 차려 내는 한 그릇 밥이면서 특별 식으로 제법 폼도 나는 메뉴다.

이번엔 조림. 요령이라면 가을무는 조림 장에 익힌 후 생선을 넣어 조리고, 봄과 여름 무는 끓는 물에 데친 뒤 조림 장에 조리다가 생선을 넣고 조려야 간이 잘 배고 맛있다. 사실 생선 없이 무만 조려 먹는 방법도 있다. 간장에 멸치나 말린 새우 다시마 등을 넣어 며칠 두었다가 건져 만든 조림 장을 활용하면 좋은데 무에 조림 장을 부어 두었다가 쌀뜨물(쌀의 녹말 성분이 무 맛을 좋게 함) 넣고 조려보라. 물론 고춧가루와 참기름 혹은 들기름을 취향대로 넣으면 되는데 맛이 담백하다.

하지만 대신 올 겨울 달랑달랑 묻어 둔(?) 무 파먹으며 무 요리 연구나 하련다. 무 샐러드, 무 전? 아니면 둘째가 좋아하던 무나물 해 먹으면서 말이다. 참 담가 둔 항아리 싱건지는 잘 익었을까? 하여간 이래저래 인삼보다 낫다는 겨울 무가 내 창고에 가득이다. 든든하다.

〈‘담양댁의 열 두 달 살림법’ 저자〉 jazzchants@hanmail.net

“218억 찾아가세요”

예탁결제원 ‘휴면 배당금 찾아주기’

한국예탁결제원은 7일 예탁된 주식을 인출한 뒤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실기주(失期株)에 지급된 배당금과 주식(실기주과실) 등에 대한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이 증권회사에서 주권을 반환 받은 후 본인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발생한 실기주과실은 현재 배당금 218억원, 주식 105만주에 달한다.

이 같은 배당금과 주식을 찾으려면 본인이 과거 거래했던 증권회사에 실기주과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반환 신청을 하면 된다. 대부분 기업이 12월 결산이므로 실물주권을 보유한 경우 12월 말까지 본인 명의로 변경해야 수령할 수 있다. 문의는 예탁결제원 콜센터(02-3774-3000) /연합뉴스

“이웃사랑으로 버무렸어요” 여수국가산업단지 공장장협의회(회장 강송구 GS칼텍스 전무) 회원사 임직원과 가족 등 300여명은 7일 여수 흥국체육관에서 ‘2011 여수산단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에서 4500여 포기의 김장김치를 담가 여수지역 사회복지단체에 전달했다.

〈여수산단 공장장협의회 제공〉

“스마트폰 활용도 비해 요금 비싸”

사용자 19.4% ‘불만족’

비싼 요금제 때문에 스마트폰에 대한 불만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전문기관인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는 7일 스마트폰 사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에 대한 불만족도가 19.4%로 지난해 4월(10.6%)과 10월(11.8%)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의 만족도도 51.3%로 지난해 4월·10월의 56.8%와 59.6%에 비해 낮아졌다.

중복 선택을 허용한 스마트폰의 불만족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의 76.3%가 활용도와 비교해 비싼 요금제를 꼽아 이용 요금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무선랜(와이파이·Wi-Fi) 지역이 적다는 불만도 56.7%로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스마트폰 활용에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13.4%)거나 ‘사용법이 너무 어렵다’(8.8%)는 점을 불만족 요인으로 꼽은 조사대상자는 10% 내외에 불과해 각각 22%, 27%의 응답률을 보였던 지난해보다 크게 낮아졌다. 한편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지난 9월 말 서비스를 시작한 4세대(4G) LTE(롱텀에볼루션) 서비스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구매 의향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LTE 서비스의 뜻과 개념을 인지하고 있다는 이용자는 전체의 56.7%였으며, 개념은 잘 모르지만 LTE에 대해 들어봤다는 이용자가 34.1%에 달해 LTE의 인지도는 매우 높았다.

LTE 스마트폰 구매 의향에 대한 질문에는 사겠다고 답한 사람이 48.7%로 사지 않겠다고 답한 18%보다 많았다. /연합뉴스